

지역 매 아리

고창경찰서, 성과보고회 가져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는 22일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분야의 성과 향상을 위해 각 기능 직원과 손을 맞잡고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생활안전교통과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안전을 제시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등 타 분야와 공유하는 자리였으며, 2019년도는 공동체치안활동, 주민이 원하는 곳을 순찰하는 탄력순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시설물 설치,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 및 단속활동,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대응, 지문 등 사서증표를 통한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등을 주요안건으로 하여 관련 지표별 아이디어 수집, 세세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소통했다.

안성관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우리는 제복입은 시민이대리는 생각을 가지고 생안·교통·여성 모든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더불어 자치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NGO와의 연계를 통한 공동체치안활동을 펼친다면 주민이 원하고 체감하는 경찰서비스 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 임시회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가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 현장 방문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28일을 시작으로 총 27곳의 사업현장 방문을 통해 군정 주요 사업의 운영상황과 문제점 등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22일 개최 첫날 이용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안 지역의 역사 자료인 부중승탑의 한글 번역과 무송병원 건물의 존치, 부안읍성 복원 사업 등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하면서, "향후 계획된 부안역사문화관 건립 사업을 계기로 지역의 역사 자료와 유적 등을 보존·발굴하는 연계 사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한수 의장은 "이번 민선 7기 조각편 이후 첫 추경 예산안이 향후 역동적인 업무 추진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군민의 행복이 담긴 다양한 의견이 이에 잘 반영되었는지 상세히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국가예산 4500억원 달성 총력”

권익현 부안군수, 주요 간부회의서 강조… 각종 아이디어 개발 등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2020년 국가예산 4500억원 달성을 위해 각종 아이디어 개발 등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22일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2020년 국가예산 4500억원 확보를 목표로 공약사업, 각종 아이디어 개발, 다양한 신규사업, 공모사업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며 “중앙부처 정책방향 공유 및 예산 순기일정에 맞춰 관련 부처 방문·협의 등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정부가 총 30조 원 규모의 생활 SOC 37개년 계획을 발표했다”며 “지역균형과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해 범정부적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정부의 생활 SOC 37개년 계획에 맞춰 부안군에 맞는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복합화 시설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 상향 지원한다”며 “사업계획 수립시 부서간 협업을 통해 시설 복합화

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부안군 대표축제인 제7회 부안바실축제가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다”며 “이번 축제는 주제와 장소, 성격 등의 변화로 새롭게 시작되는 축제인 만큼 각 부서별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도민체전 대비 위생업소 점검 강화

청보리밭 축제를 비롯한 각종 봄 행사가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고창군에 관내 음식점 위생점검을 강화한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방문의 달”을 맞아 식중독 예방과 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해 식품·공공위생업소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함께 축제장의 음식 판매장을 방문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

재료 취급, 조리과정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해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특히 숙박업소의 객실 위생관리 상태와 가격표 게시 여부를 점검해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 고창을 찾는 관광객과 선수단이 편히 쉴 수 있

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 청보리밭 축제 기간 내 ‘손씻기 위생교육’ 부스를 운영해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에 대해 올바른 손씻기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점검시 조리종사자 및 영업주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과 친절교육을 병행해 식품안전의식을 높일 것이다”며 “특히 바가지요금을 근절해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친절한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이미지를 남겨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의회가 최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속초시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격려했다.

정읍시의회, 속초 방문 산불 이재민에 위문품 전달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최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속초시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주민들을 위로·격려했다.

김재오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정읍시의회 방문단은 속초시의회(의장 최종연)와 간담회를 갖고 피해상황을 들은 후 피해지역을 돌리보고 정성껏 마련한 26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단풍미인쌀 10kg 100포)을 전

달했다. 김재오 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속초시에서 본격적인 복구사업이 추진되면 정읍시의회에서도 현장상황을 고려한 인력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은 개

인적으로 26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단풍미인쌀 10kg 100포)을 기부하고 시름에 빠진 이재민을 위로했다.

이복형 위원장은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속초시의 큰 산불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 작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며 “복구가 조속히 마무리 되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유진섭 정읍시장과 김인태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최근 아양산을 찾아 '아양산 대규모 도시 숲 조성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

아양산 정상에서 유진섭 정읍시장 비롯 간부공무원 토론회

문화와 역사, 자연 등 지역자원의 고품질 콘텐츠(contents)화에 힘을 쏟고 있는 정읍시가 현장에서 답 찾기에 나섰다.

각종 정책이나 사업 수립 또는 현안사업 추진 시 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자는 취지다. 정책 수립 등에 대한 간부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 곳곳을 직접 둘러보면서 향토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정읍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 가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유진섭 시장과 김인태 부시장을 비롯한 국단소장, 직속과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최근 아양산을 찾아 '아양산 대규모 도시 숲 조성사업(이하 도시숲)'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당일 오후 4시 30분 정읍시공원을 출발한 간부 공무원들은 전북 과학대학교 뒤쪽 아양산을 오르며 도시 숲 조성 현장에 도착,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업계획 등을 보고 받은 후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시가동 산 9번지 4만7천여㎡에 20여원을 들여 조성 중인 도시 숲은 이달 중 완공 예정이다. 산책로와 물소리 쉼터와 숲속 오두막, 언덕놀이터 등이 갖춰진다.

유 시장은 “미세먼지 등이 심각해지면서 도시 숲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쾌적한 숲에서 휴식을 취하고 아이들과 함께 여유를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해부터 조성 예정인 2만㎡의 정읍시공원 유아 숲 체험원 조성 부지도 둘러보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유진섭 시장은 정읍시 아양봉까지 함께 올라 시가지를 굽어보며 아양산을 시민들이 보다 더 편하고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지방세 납세자권리현장 제정

정읍시가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납세자권리현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됐다.

납세자권리현장은 △납세자 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연기·연장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읍=김대환기자

시 세무공무원이 법적 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현장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나눠주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겠다”며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시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납세자 보호관을 지난해 6월 시청 감사과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 Wine featuring Mulberry Wine and various gift sets. Includ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boxe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describes the wine's quality and offer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